

## 기념비적 근대 출판의 문을 연 육당 최남선



역사의 법정에 선 인물을 평가하는 데는 섬세한 잣대가 필요하다. '현재성'이라는 법조문만으로 '당대상'을 재단해버리는 일은 때로 위험할 수 있다. 현재의 가치만으로 과거를 심문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판결은 현재성과 당

대성의 균형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 역사의 경우 특히 친일파의 성격과 범위를 확정하는 데 세심한 비평적 안목이 요청된다.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를 옹호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다만 친일이나 항일이나 이분법만으로 한 인물의 전모를 가늠하려는 단선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말이다.

육당 최남선(1890~1957)이 그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지사에서 일제의 역사 왜곡에 동원된 부역자로 변절한 그의 행보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지사 최남선의 휘절은 이미 역사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출판인' 최남선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신문관'과 '조선광문화'라는 근대의 기념비적 출판사를 세움으로써 국내 출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다. 봉건왕조의 황혼과 근대의 아침이 겹칠 무렵 소년기를 겪은 그는 '출판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전대미문의 출판공화국 수장이 되었다.

육당은 한마디로 조숙한 천재였다. 다섯 살 때 한글을 깨쳤고 14세 때 최연소 황실파견 관비유학생으로 뽑혀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조선보다 한발 앞서 문명개화의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던 일본의 심장부에서 출판대국 일본의 저력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인다. 후일 창간한 잡지 《소년》에서 "그 앞에 한번 머리를 숙였고, 숙였다가 한숨 쉬고, 한숨쉬다가 주먹 쥐고, 주먹 쥘 때에 곧 '이 다음 기회가 있을 테지' 하는 믿지 못할 허망한 꿈을 꾀었고 스스로 위로했다"며 당시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첫 번째 유학길에서 동료 유학생들의 치졸한 행동거지에 절망하고 3개월 만에 돌아온 후 그는 1907년 다시 2차 유학길에 오른다. 두 번째 유학을 마친 그는 한약방을 경영하던 부친을 설득해 사업자금을 얻어 일본의 인쇄기를 구입하고 인쇄기술자를 구해 조국에 돌아왔다.

드디어 1908년 부친의 사무실에 신문관이란 명패를 달고 출판업에 뛰어들었다. 그의 나이 겨우 18세 때였다.

신문관은 국내 최초의 창간인 《경부철도가》를 필두로 수많은 단행본을 펴냈고, 《소년》지를 창간한 이래 《아이들보이》 《청춘》 등의 잡지를 선보였다. '문예작품 현상모집'이란 이벤트를 기획해 근대 문단형성에 기여했고, 우리 나라 문고본의 효시인 '육당소설'을 내놓아 서점가를 평정하기도 했다. 육당은 일인다역의 천재를 발휘했다. 단행본 및 잡지 편집뿐 아니라 인쇄에 쓸 용지, 잉크, 활자 등을 구입하는 일부터 서점 영업에 이르기까지 혼자 도맡았다.

육당의 진가는 1910년 세운 조선광문화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는 조선연구회, 조선고전간행회라는 일인 출판사들이 우리의 고전문헌을 약탈해갈 무렵이었다.

사장되고 유실되어가는 우리 고문헌의 비극에 눈뜬 그가 조선혼의 파수꾼으로 자원해 나선 것이 조선광문화였다. "일본으로 인해 오천년 선철(先哲)의 혁혁한 공이 매물됨을 한탄해 스러져가는 민족문화를 드 날리고자 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조선광문화는 방대한 규모의 간행서 목록을 기획하고 매월 평균 두 권씩 고전을 복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애초의 계획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30여종을 펴내는 데 그치고 말았지만, 조선광문화가 후대에 미친 업적은 지대했다.

조선광문화본은 엽가본이면서도 권위 있는 정본으로 당대에 평판이 자자했다. 무엇보다 해제와 색인을 달아 후일 학술출판의 전범을 마련했다. 조선광문화의 도서목록을 살펴보면 《동사발해세가》 《조선비사집성》 등 오늘날 사라져버린 책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유진오가 평한 대로 육당은 "역사의 격동기에 태어나서 시대의 거센 물결을 전신에 뒤집어써가면서 묵은 시대로부터 새 시대에 이르는 교량을 건설"한 출판인이었다.

그의 정신적 변절은 우리의 버리고 싶은 유산이었지만, 그의 문화투쟁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자산 가운데 하나다. **IKOVA**